무주다운 복지공동체 실현 박차

군, 2026년도 복지 시행계획 심의·의결… 복지사업 중장기 추진 방향성 담아

무주군은 지난 14일 제5기(2023~2026) 무주군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무주형 아이 돌봄 지원, △반디 나눔 무주 운동 확산, △장애인 이동권 확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군립요양병원 운영 활성화, △임신축하금 지원 등 18개 사업과 15개 세부 과업이 포함됐다.

무주군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기관 관계자 중심의 전략팀을 구성하고, 총괄기획·가족복지·장애인복지·교육여가·지역복지·통합사계·노인보건 분과별로 계획 검토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행정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홍진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별 질의응답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황인홍 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무주군 복지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무주군은 이를 토대로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공동체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출범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연계 협력기구로, 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 성지 무주 위상 제고·가치 확산 기여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 선수 등 2500여명 참가 성황리 개최

제21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가 지난 15일과 16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일보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휴먼테크융합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하는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는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의 신체적·정신적·문화적인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무주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올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천5백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 등 총 2천5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5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진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장과 박지원 태권도학과 조교가 국기 태권도와 태권시티 무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인홍 무주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치러지는 전국 태권도 시범·격파·품새·태권체조 경연대회로 쌓은 축제의 명성과 역사가 벌써 20년을 넘겼다"라며 "웰빙태권도 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주군도 글로벌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태권브이랜드, 태권마을 조성 등 태권도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품새 부문은 '화합경연 단체전(태극 2, 3장)'과 '공인품새 개인전', '자유품새 개인전'으로 치러졌으며 특히, '화합경연 단체전'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과 스승과 제자 등 다양한 조합의 팀 구성 경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격파 및 시범 부문에서는 '개인 격파'와 '팀 대항 종합경연', '태권체조' 경기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겨울철 대비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겨울철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시기를 앞두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부서와 읍·면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적설취약시설 △제설취약지역 △고립예상지역 △한파쉼터 등 겨울철 위험요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상태와 긴급 복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결빙 위협이 큰 도로구간, 독거노인 거주지 인근 한파쉼터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별 대응 체계를 실제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의 깊이를 더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현장에서 제설 자재·장비 비축 현황, 취약지역 안전조치, 긴급 복구 체계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선제적 점검과 철저한 대비만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상 안전 홍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관내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설·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설 장비 조기 배치, 신속한 작동 체계 구축, 마을 단위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군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AI 기술, 행정에 적극 도입해야"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무주군 맞춤형 AI 활용방안 제안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사진)이 사회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AI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 혁신을 위한 AI활용 제언」 5분 발언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AI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여러 지자체가 AI를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행정혁신의 핵심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민원처리, 복지서비스 추천, 시설물 안전관리, 소비·유통 정보 산출 등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고 "무주군 역시 관광, 농업, 복지, 안전 등 다방면에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AI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 맞춤형 AI 행정혁신 활용전략으로 △무주형 AI 행정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AI 추진 로드맵 마련과 우선분야 선정 △무주군 특화 AI 시범사업 추진으로 스마트농업과 지역복지모델 구축 △공직자 AI 역량 강화와 군민 인식 제고로 AI 행정서비스 홍보 및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AI 기술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이 사람 중심의 AI 행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무주를 실현한다면 작지만 강한 미래형 자치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다"며 AI 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시니어클럽은 지난 14일 진안군 문예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00여 명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안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 행사 성료

진안시니어클럽(관장 김완술)은 14일 진안군 문예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00여 명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식전 민요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작되었고, 이어 조선팝 공연, 완주시니어클럽의 문화예술 공연, 트로트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신규 공익활동 사업으로 추진된 '자원순환사업단'은 지역 내 카페(빽다방 진안읍점, 담쟁이카페 진안읍점, 베러먼데이 안천면점) 및 개인으로부터 우유 팩을 기증받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교환된 화장지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활동을 소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활동은 참여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안겨주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진안군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해외 전문가 초청 사과 다축·밀식재배 교육

장수군은 지난 14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사과 실습포장에서 농군사관학교 사과 다축·밀식재배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사과 재배 농가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사과 재배 전문가 마크 에릭슨(Waima Orchard 대표) 박사를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해외 선진 기술을 접목해 장수사과의 생산성 향상과 재배 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릭슨 대표는 20여 년간 사과 밀식재배 기술을 연구·보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축밀식재배 시스템 설계 △수형 관리 및 가지 유인 기술 △수세 조절을 통한 고품질 생산 전략 △수확 후 관리 및 시장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상세히 강의했다.

이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앞 시험포장에서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을 진행하며 수형 관리의 핵심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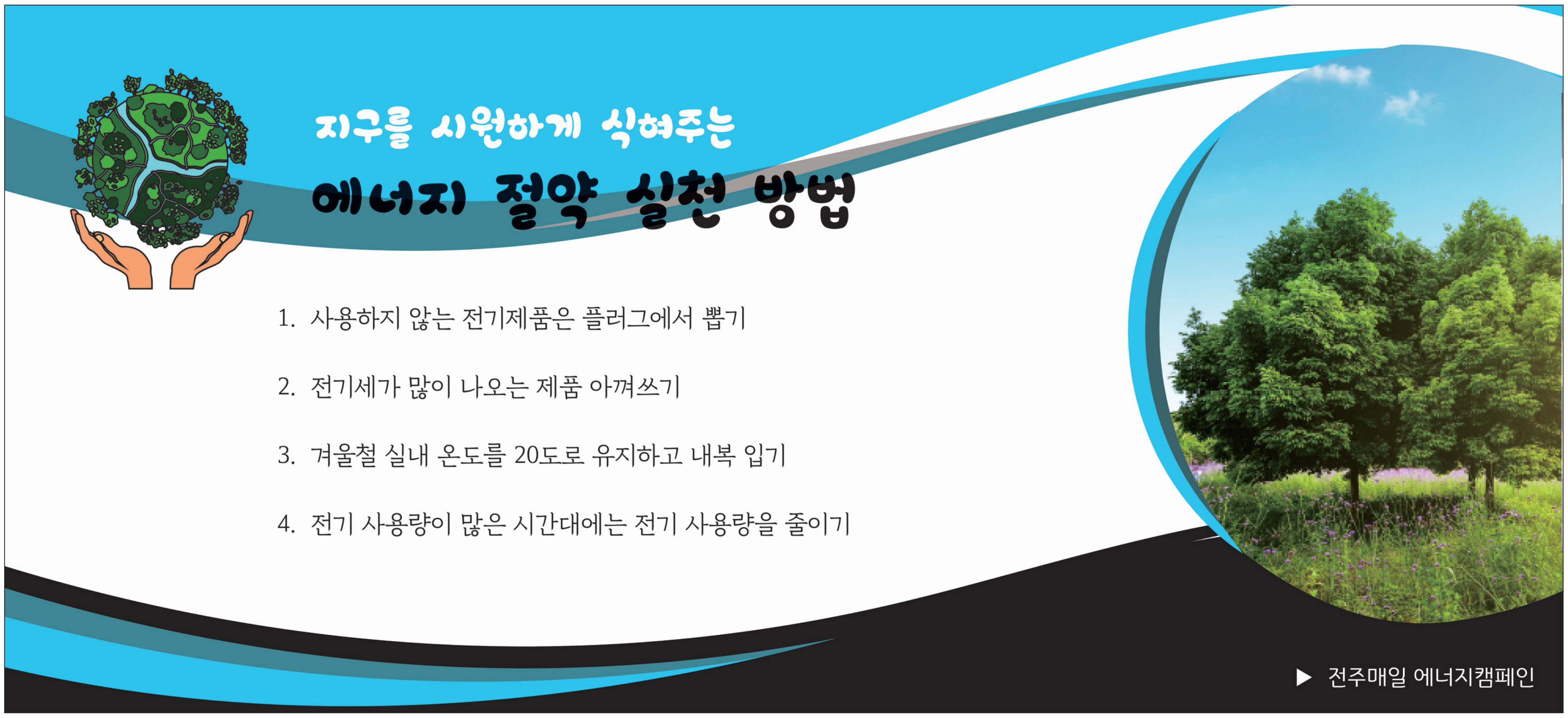
최훈식 장수군수는 "해외 전문가의 노하우를 지역 농가와 공유하는 이번 교육이 장수사과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12월 26일까지 노인 구강건강증진교실 운영

무주군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노인 구강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함께 지역 내 경로당 10곳을 비롯해 군립요양병원(입원환자, 돌봄 인력 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틀니 관리법, 잇솔질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 체조를 비롯해 '시린 이' 예방을 위한 치아에 불소 바니쉬 도포를 병행해 어르신들의 구강 질환 유병률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